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있어』 독후 활동지



알렉스 킬리언 글 | 그레이디 맥퍼린 그림 | 최현경 옮김
불광출판사 | 40쪽 | 초등1~2학년

“

삶의 모든 순간 존재하는 ‘사이’에 관한 그림책.
삶의 전환기를 겪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

”



책 읽고 이해하기

1. 책 속에서 ‘사이’를 뜻하는, 또는 ‘사이’를 닮은 단어를 3개 찾아 써 보세요.
(예: 꿈, 새벽녘, 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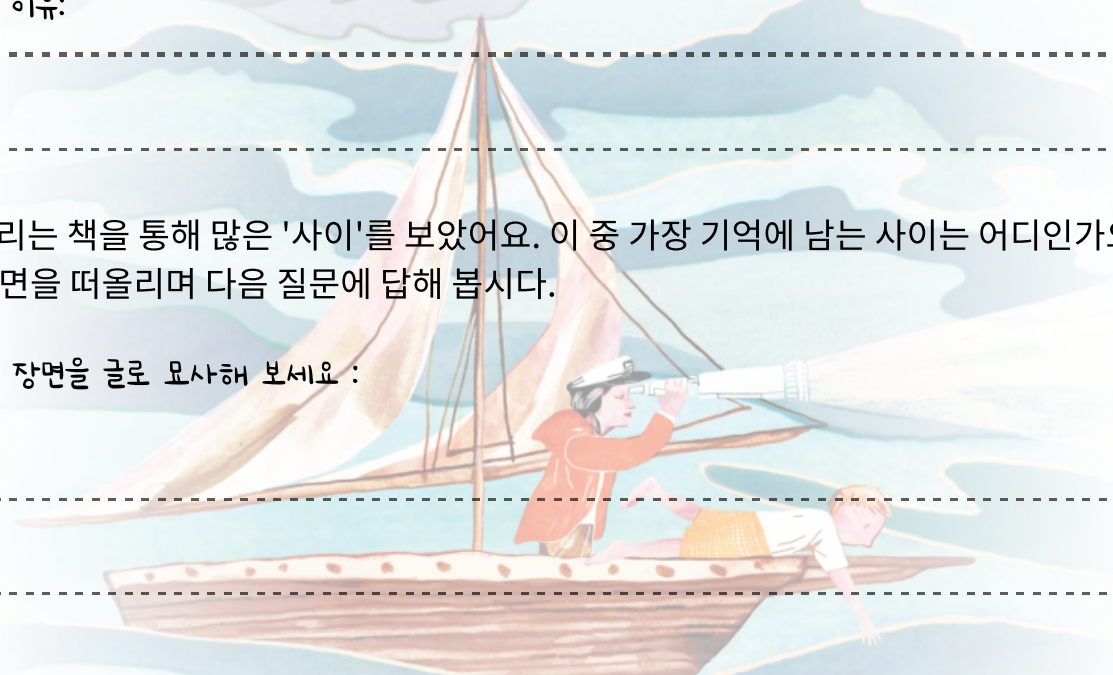
2.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이’를 닮은 단어를 5개 이상 써 보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써 보세요.

● 단어 5개:

● 그 이유:

3. 우리는 책을 통해 많은 '사이'를 보았어요.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이는 어디인가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그 장면을 글로 묘사해 보세요 :



활동2

사이 그리기

사이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림을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빨랫줄이 걸려 있지요. 그 줄에는 서로 다른 집의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마치 두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같아요.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 넣고 싶나요?

무엇이든 좋아요. 마음껏 상상해 보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 내가 그린 '사이'에 대해 간단하게 글로 써 봅시다.

활동3

우리가 만나는 사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이'를 지나갑니다.

나의 하루, 한 달, 혹은 인생 속에서 '사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각 순간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시>

- 내 인생의 사이: 이사 전날과 새집 첫날 사이
- 그때의 내 감정이나 생각, 또는 있었던 일: 오래 살았던 집에서 떠나려니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웠어요. 벌써 그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새로 이사 가는 집에는 내 방도 생겨서 기대가 되기도 해요. 새집 창문을 열면 무엇이 보일지 궁금해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집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 내 인생의 사이:

.....

● 그때의 내 감정이나 생각, 또는 있었던 일:

.....

.....

.....

.....

● 내 인생의 사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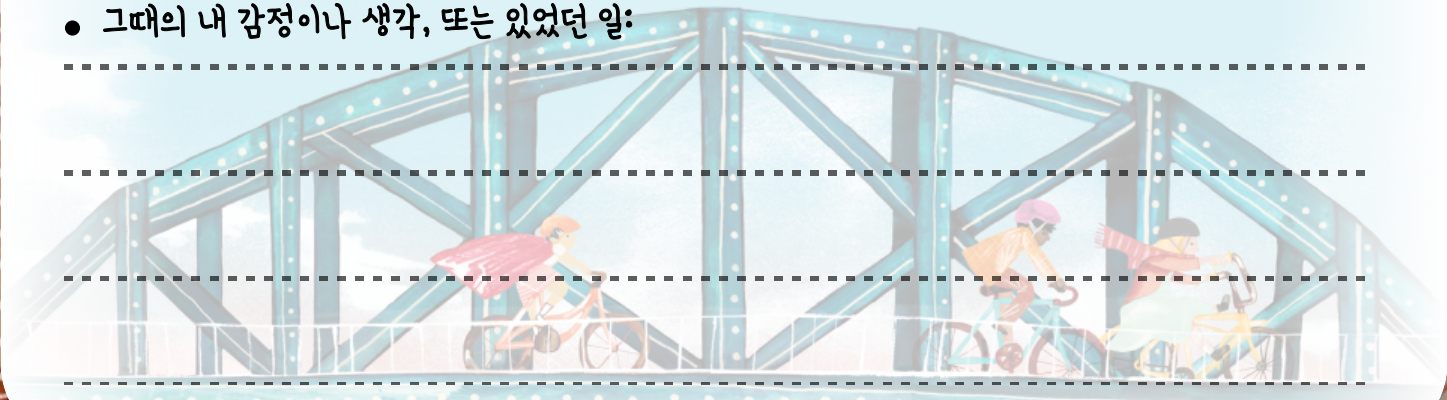
● 그때의 내 감정이나 생각, 또는 있었던 일:

.....

.....

.....

.....



활동4

때로 너무도 길고 어두워

‘사이’는 항상 설레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길어서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끝이 보이지 않아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이를 지나면 좋을까요?

아래 질문에 답하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여러분도 살면서 이토록 길고 어두운 사이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써 봅시다.

2.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는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섭잖아요. 긴 사이, 어두운 사이를 지나야 할 때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보며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좋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이 되는 한마디를 2개 이상 적어 보세요. (예: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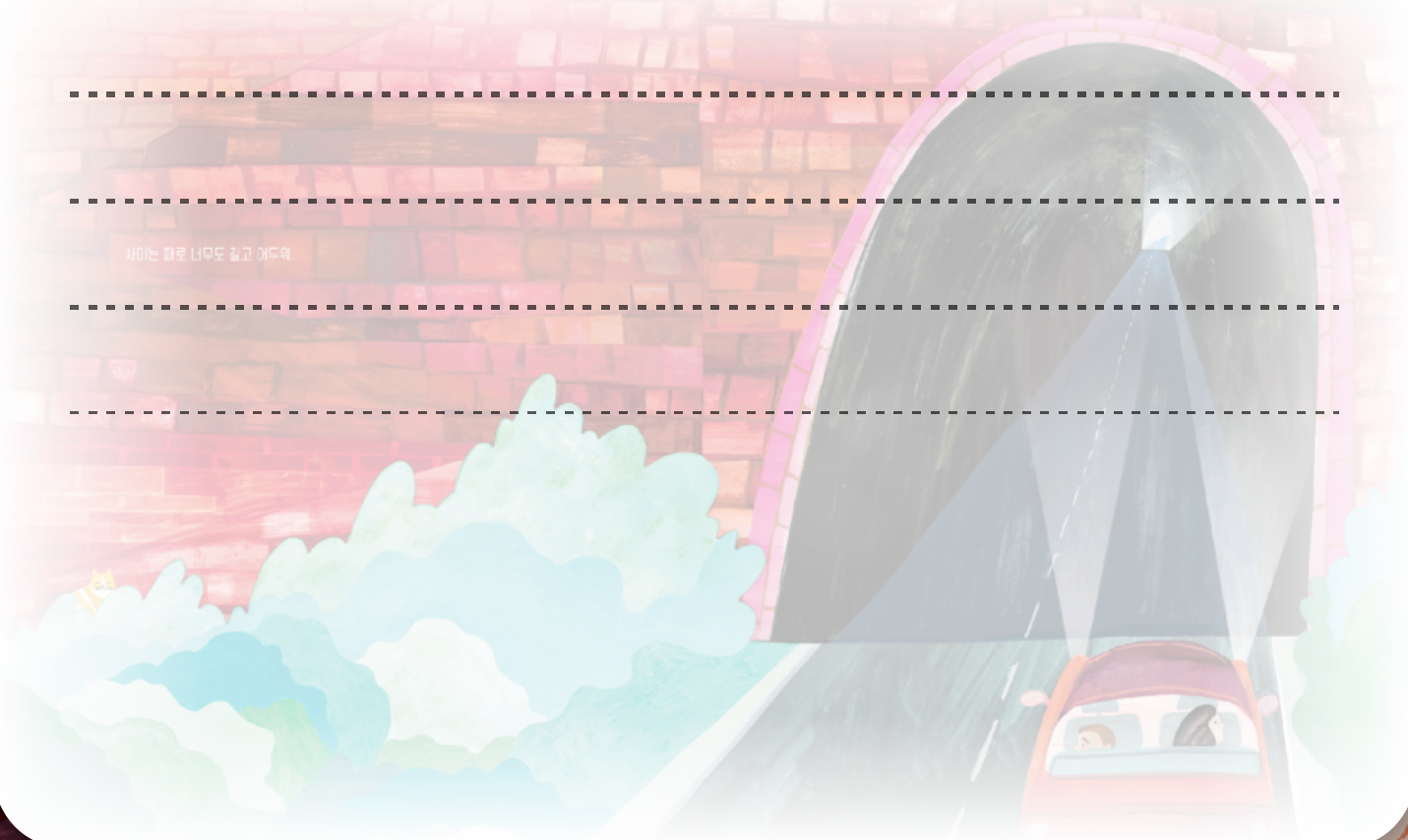
3. 사이를 지나면서 길고 어둡더라도, 중간중간 꽃밭이 있다면 꽃을 구경하며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도 긴 사이를 지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분 좋아지는 노래를 듣거나, 함께 걸어줄 친구를 찾는 것처럼요.
그럼, 여러분은 ‘사이’를 어떻게 꾸미고 싶나요? 자신만의 방법을 떠올리고 써 보세요.

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끝에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활동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사이 여행 이야기’를 써보세요. 사이를 지나면서 겪는 일들을 상상해 보고, 그 경험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다음을 참고하면 좋아요.

- 그 사이를 걸을 때, 내 기분은 어땠나요?
- 그곳을 걸으며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 길고 긴 사이를 걸을 때, 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그 긴 사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목:

사이에는 정말 너무도 깊고 어두워



활동5

선택에 대하여

사이를 지나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속 나아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지요.

때로는 힘껏 도약하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하면서요.

이제 아래 질문에 답하며, 선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예: 친구와 상의하기,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기)

1.

2.

3.

2.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3개 이상 적어 보세요. 피자냐 햄버거냐 하는 단순한 선택보다는, 그 뒤로 길이 길게 펼쳐질 선택에 대해 쓰는 것이 더 좋아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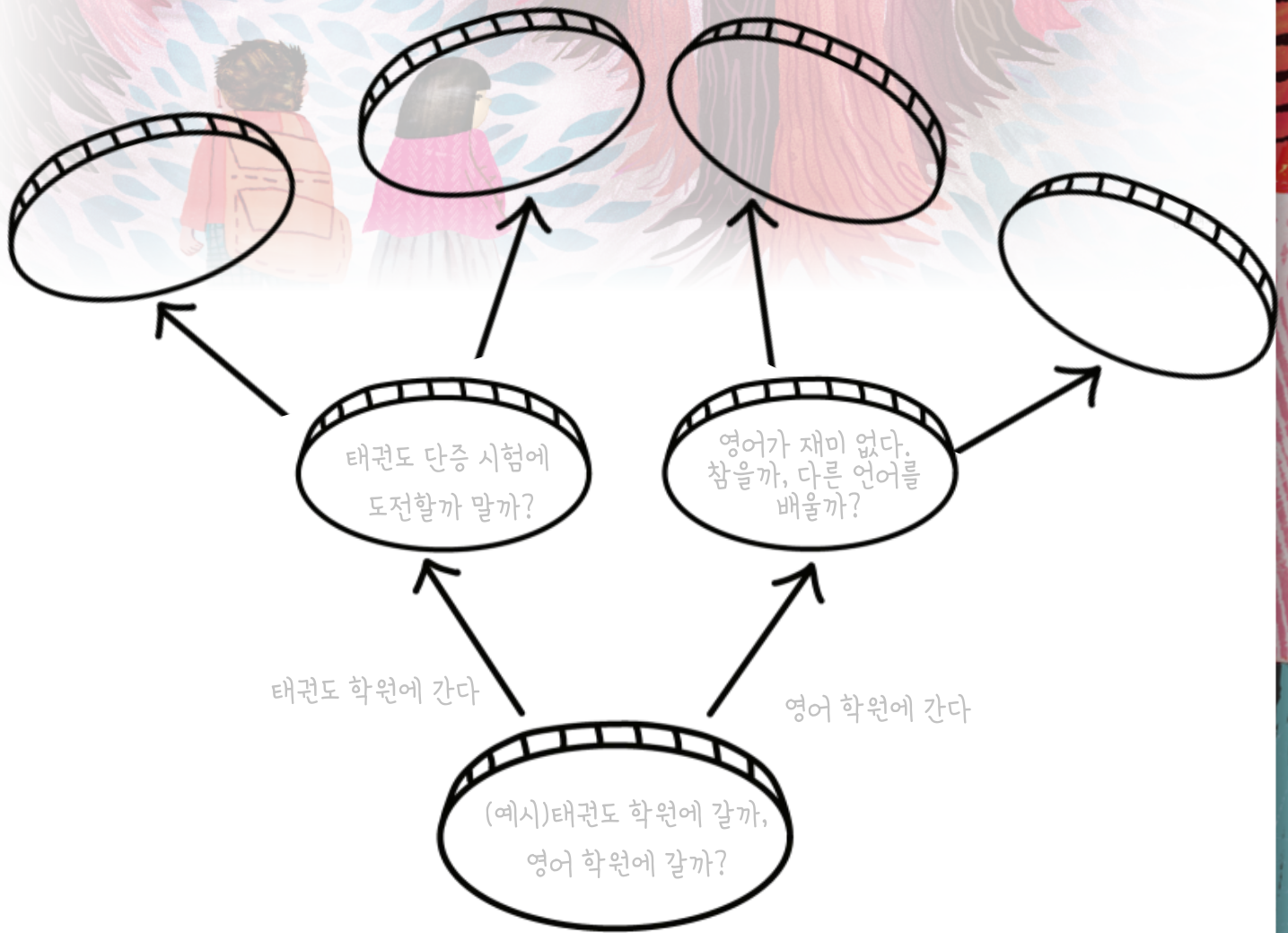
2.

3.

3. 위의 '선택의 순간' 중 하나를 골라 '선택의 나무'를 그려 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서 가지를 계속 뺏어나가 보세요.

(회색 글씨는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선택의 나무를 그려 보세요.)



4. 선택의 나무를 보면, 내가 한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그 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나무를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써 보세요.

활동6

시로 표현해요

이제 여러분이 느낀 ‘사이’를 시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쓴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함께 그려 보세요.

시 속 장면을 직접 그려도 좋고, ‘사이’라는 느낌을 색깔이나 선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제목:

지은이: